

# KB STARS

# Magazines

제 11호

## <4라운드 리뷰>

- KB스타즈 배구팀의 드라마
- 86일만의 홈경기 승리 그리고 연패

## <특집>

"KB스타즈의 가족으로 산다는건"

## <기록열전>

- 김요한
- 권영민
- 하현용
- 마틴

## [ 5R KB경기안내 ]

- 01/20(수) vs OK저축은행\_안산
- 01/23(토) vs 한국전력\_구미
- 01/28(목) vs 우리카드\_구미
- 02/02(화) vs 현대캐피탈\_구미
- 02/08(월) vs 대한항공\_인천
- 02/11(목) vs 삼성화재\_구미



# KB손해보험스타즈배구팀

# KB손해보험 스타즈의 드라마

2016년 새해, 첫 게임 KB스타즈의 경기는 팬들에게 그야말로 잘 짜여진 한편의 드라마였다. 김요한이라는 미남 주연배우를 중심으로 KB스타즈 선수단이 포진해있고 상대배역 역시 전광인이라는 슈퍼스타가 맡아주었다.

역시 시작은 고난이었다. 여느 드라마 주인공이 어렵거나 가난한 배경에서 출발하듯 KB 스타즈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을 것 같은 경기력이 팽배했다. 특히 주연 배우 김요한은 공격성공률이 30%를 넘지 못하며 주저앉아 버리는 듯 했다. 그러나 2세트부터 4세트까지 45%, 75%, 75%의 성공률과 3세트 서브에이스 연속 3개로 드라마 상황은 격변했다. KB 스타즈의 '승리'와 함께 종영을 앞에 둔 것.

하지만 흥행하는 드라마는 그렇게 쉽게 일단락 나지 않는 것처럼 상대배우 전광인을 필두로 5세트 숨 막히는 듀스 접전을 펼쳤다. 마지막 비디오 판독에서 모두가 숨을 죽였고 우여곡절 끝에 KB 스타즈는 승리를 거두었다.

KB스타즈의 드라마는 아직 진행중이다. 남은 5-6 라운드에서 많은 승리의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 극복해야할 점은 바로 리시브다. 리시브 성공은 경기력보다 선수들의 정신력에 달려있다. 그러므로 선수들은 멘탈 강화에 집중하여 리시브 성공률을 높여야 할 것이다.

## 86일 만에 홈경기 승리 그리고 연패

2015년 10월 23일 우리카드와의 풀세트 접전 끝에 홈에서 승리한 KB스타즈 선수단은 경기가 끝난 후 신나는 음악에 몸을 맡겼다. 승리의 기쁨도 잠시, 그 후 10연패, 홈경기 7연패의 수렁에 빠졌다. 구미 홈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늘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.

그렇게 기다리기를 86일. 2016년 1월 10일 구미체육관에 팡파레가 터졌다. 워업존에 있는 선수들은 달려 나와 승리를 자축했고 코트에 있는 선수들도 이제야 함박웃음을 지으며 홈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.

그러나, 오랜만의 홈경기 승리 후에 KB 스타즈는 또 다시 되풀이되는 연패를 겪고 있다. 14일 현대캐피탈과의 원정 경기, 17일 삼성화재와의 홈 경기에서 상대에게 쉽게 점수를 내주며 4라운드를 마무리했다. 아쉬움이 큰 지금 경기 초반 범실에 대한 빠른 극복과, 안정적인 리시브만이 연패의 답이 될 것이다. 남은 라운드 유종의 미를 거두고 더 나아가 내년 시즌도 바라볼 수 있는 KB스타즈가 되길 기대한다.

# KB스타즈의 '가족'으로 산다는건

- 강성형 감독과 김경훈 코치의  
가족을 만나다 -

한결같이 냉정하고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야하지만,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아내의 따뜻한 포옹과 아이들의 귀여운 애교가 매일 그림습니다. 하지만 목청 높여 응원해주시는 팬들을 위하여, 가족들과 떨어져 선수단과 함께 땀 흘립니다. 언제나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는 가족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.

## 1. 특별한 직업,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다, 아버지/남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나.

강성형 감독 딸 : 아빠가 여름,겨울철 시즌준비 때문에 집에 잘 못 오세요. 친구들 가족처럼 워터파크나 스키장을 못가는데 아쉬워요

김경훈 코치 아내 : 애들이 어렸을 때는 시댁의 대소사일, 양육, 살림을 혼자 하려니까 정말 힘들었는데, 애들이 크면서 오히려 아빠의 빈자리를 책임감 있게 대신해서 저를 도와주려고 해요, 또, 부모님 아프실 때 아들로써 못 챙겨드려서 죄송해 하는 걸 보면서 빈자리가 느껴지죠. 아이들도 아빠 보고싶다고 많이 울었고, 제 생일은 시즌중이라 지금까지 한번도 같이 보낸 적이 없어요

## 2. 컨트위에서는 냉정함을 유지해야한다. 가족들에게 평소 어떤 성격인지 ?

강성형 감독 딸 : 되게 가정적이세요. 화도 잘 안내시고, 혼내실 때 때리지거나 무섭게 하시기보다는 말로 좋게 타이르세요. 늘 백점같은 아버지지만 집에 자주 못 오시는게 아쉬워서 98점 아빠예요.

김경훈 코치 아내 : 인상이 날카로워 보이지만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 더없이 좋은 아빠예요. 연애할 때는 무뚝뚝했는데 결혼하고나서 아이의 친구들도 엄청 부러워 할 정도로, 말도 다정하게 잘해주면서 가정적으로 변했어요! 정말 좋은 남편,아빠입니다.

## 3. 10년패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강성형 감독,김경훈코치에게 어떻게 응원했는지?

강성형 감독 딸 : 경기장에 찾아가서 직접 응원하기도 하지만, 저희가 경기장에 못 가는 날에는 경기 시작 전에 아빠 파이팅 하시라고 메시지 남겼어요.

김경훈 코치 아내 : 그렇게 많이 저본 적이 없어서 사실 통화조차 못했어요. 서로 전화를 안하고 팀애기 자체를 못하겠더라고요. 한두번 질 때는 '괜찮아 잘하면 되지~' 라고 응원했지만 더 많이 질 때는 통화 할 때도 스트레스 받을까봐 팀애기 안하고 가족 얘기를 주로 했어요.

## 4. 집에서 가족들과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

강성형 감독 아내 : 남편이 집에 왔을 때는 저와 아이들이랑 같이 보내려고 노력해요. 또 제 건강을 걱정해서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등산이나 헬스를 같이 가요.

## 5. 아버지 / 남편에게 응원의 한마디

강성형 감독 아내 : 아무래도 중요한 자리에 있다 보니 걱정도 많고 스트레스 받아서 흰머리도 한두개씩 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승승장구 하세요! 사랑해요^^

김경훈 코치 아내 : 집에서는 더없이 다정다감한 사람인데 바깥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게 속상하기도 해요. 원래 알고보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남자라고 생각하니까 다가와주셨으면 좋겠어요~



# 4라운드 기록열전



## 통산 3500득점(3호)

레전즈 이경수 선수가 V리그에서 가장 먼저 세운 3522득점 기록을 1월 17일 삼성화재전에서 김요한 선수가 역대 세 번째 선수로 이어받았습니다.

이경수 선수는 현역 시절 총 3841득점을 하였고, 지금도 깨지지 않는 기록입니다. 김요한 선수는 함께 했던 이경수 선수의 기록을 목표로 더 열심히 뛰겠다고 하였습니다.



## 세트성공 12000점(1호)

권영민 선수는 지난 1월 16일 현대캐피탈과의 천안 원정 경기에서 프로배구 출범 이후 최초 세트 성공 12,000개를 기록하였습니다. 친정팀을 상대로 세운 기록이라 더 뜻깊은데요. 역사에 남을 대기록을 세운 권영민 선수, 앞으로 KB스타즈에서 또 다른 1호 기록이 탄생하길 기대합니다.



## 블로킹 성공 650개(4호)

KB스타즈의 든든한 주장, 하현용 선수는 1월 17일 삼성화재전에서 블로킹 성공 650개로 역대 4호 선수로 기록되었습니다.

부상을 극복하고 돌아온 하현용 선수가 더 기록을 세울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바랍니다.



## 트리플크라운 10호, 11호

마틴 선수는 1월 10일 우리카드와의 홈 경기에서 서브 득점, 백어택, 후블로킹 각각 3득점 이상을 달성하며 개인 통산 11번째 트리플크라운을 기록했습니다!

이번 시즌 4라운드에서만 두 번째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한 마틴 선수가 남은 5-6라운드에도 좋은 활약을 펼치길 바랍니다.